

# 정죄와 용서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누가복음 6:37-38, 흠정역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쟁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 1. 판단과 정죄의 문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 세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주는 대신에 달라고 요구하는 잘못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크리스찬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훈련을 받은 덕택에 남을 판단하는 일을 되도록 삼가하고, 관용하여서 남에게 댓가를 기대하지 않고 물질과 사랑을 베푸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의 차이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나 역시 20 세의 청년으로 1967 년에 처음 미국에 와서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의 친절과 관용에 접했을 때에 매우 놀랐었고, 이런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을 떠나서 인간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사셨을 때에는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소위 모세의 율법과 정신을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대신에 남들에게 적용하여 정죄하는 문화를 보시고, 그러한 잘못된 문화의 기수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여러번 꾸짖고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심령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다 [krino]’의 희랍어 단어의 뜻은 “재판, 정죄, 단죄, 복수, 저주 등을 목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결정함”에 있습니다. 즉, 남을 판단함은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돕거나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거나 단죄하려는 목적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판단하지 말라’에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에 그의 잘못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며 다만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주어라’는 교훈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 2. 용서와 관용의 문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배웠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옳다고 배운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면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들밭에서 곡식 도둑질도 하고, 음행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도 않는 것이요?”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서는 강조하십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희들의 율법과 규정들은 과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옥죄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냐? 너희들도 남을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작은 잘못들로 그들을 정죄하는데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라.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관용과 친절과 먹을 것을 베풀어라. 그러면 저들이 너희를 존경하고 따르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요, 정의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와 좌로 나뉘어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심지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이해하고 관용하며 용서하고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늘 왕국에 갈 때에 그곳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 왕국의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 묻습니다. 네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이 있는가? 이제 그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때가 지금임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나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상했거나 그 결과 우리의 사귀이 방해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도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내가 미처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가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멘.